

1년

김학인 선생

김학인 (원명 김 와실리 이와노유키) 선생은 1913년에 원종변강 연해곡에서 탄생하였다. 원풍으로 복해 한인들의 강제 피류시에 김학인 선생은 카자흐 공화국에 실려왔다.

김학인 선생은 1938년에 알타이아다 시에있는 "끼로브" 영칭 카자흐 국립종합대학^{대학}을 1941년에 마감하였다.

대학을 필한다음 카자흐 공화국 코스를다 시에 화전받아 시검찰노 예심원으로 1941년 복해 일 하시게 되었다.

김학인 선생은 1947년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결정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에 극리공산당의 부를 수행할 목적으로 도착하였다.

북한에 도착한 김학인 선생은 경희안전소에서 사회안전부장으로 일하였으며 국가를 복해 조강의 군사칭호를 수여 받았다. 많이 약 시기 사상검열후 평 이 강하여 지자 김학인 선생은 재정영 복상으로 전근 되어 1973년까지 일하시어 사회보장 현금생활에 넘어 갔다.

김학인 선생은 조선정부와 소련정부의 많은 품창들 을 수여 받았다.

2000년 1월 12일 하늬켄에서.